

# “이차전지 특화산단 전북에 반드시 유치하자”

산업·경제·청년·대학생 등 순수 민간 주도 범도민 실행위원 발대식 개최

김관영 지사 “전북의 미래세대를 위해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 달라” 강조

국가 미래산업의 핵심 전략인 이차전지 특화산단 유치 전북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범도민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민간 주도의 이차전지 특화산단 유치 지원 활동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차전지 특화산단 유치 전북 실행위원회(이하, 전북실행위원회)는 8일 전북도청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북도민의 의지를 결집해 적극적 활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전북실행위원회는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운동이 시작된 만큼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전북 유치를 위해 실행위원 한분 한분이 그 분야에서 책임 있게 뛰어달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우리는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공급망과

산단단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라고 천명했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운동이 시작된 만큼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전북 유치를 위해 실행위원 한분 한분이 그 분야에서 책임 있게 뛰어달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우리는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공급망과

하는데 새만금이라는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인 이차전지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특화산단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전북의 미래세대를 위해 도민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차전지 산업은 향후 10년 이내에 8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가 갈망하는 첨단전략산업이다. 특화단지 유치를 전북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자”라고 말했다.



8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특화단지 유치 전북실행위원회 발대식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운데)를 비롯한 국주영 도의회의장, 백종일(전북은행장)실행위원장, 조지훈(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실무 총괄 등 90여 개 단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실행위원회는 이차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유치 의지를 확산시키는 등 범도민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쟁 도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특유의 활동도 펼쳐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안전 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 △대한민국을 첨단기술 혁신과 R&D의 중심지로 조성, △건설한 국내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특화단지 신규 지정에 나섰다. 이에 전라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T/F 구성’을 시작으로 특화단지 유치 공모에 뛰어들었으며, 지난 3일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 공중·식품위생업소 집중 단속

전북특사경, 19일까지 조식제공 숙박업소 110곳 대상

아태 마스터스대회 앞두고... 공중·식품위생 안전성 확보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공중·식품위생분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숙박·식품업소를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2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기간동안 도내에 머무는 선수단 및 관광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단속대상은 숙박시설 내에서 조식 등을 제공하는 업소 110여 개소(숙박업소 46, 일반·휴게음식점 64)이다.

숙박업소의 주요단속 사항은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관리 여부 △숙박요금표 비치 여부 등이다. 음식점의 경우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사용 여부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원산지 하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교육 및 현지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급격히 더워진 날씨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위생관리로 아태 마스터스대회 동안 도민 및 방문객에게 청결한 위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주시길 당부했다.



# 법정 감염병 이론·검사·실습 교육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14개 시·군 감염병 검사 요원 대상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은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감염병 검사 요원을 대상으로 법정감염병 이론 및 검사 실습 교육을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이는 신종?해의 유입 감염병 및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보와 감염병 진단 분야의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결핵, 에이즈 등 각종 법정 감염병 및 식중독에 대한 이론과 검사 방법, 유전자 검출검사 및 진단 분석을 진행하는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급성 호흡기 병원체 검사 및 감시체계에 대한 소개를 통해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병 매개체를 자세히 설명하고, 지역 내 생물테러 발생 시 대처요령 및 기관별 역할도 교육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시·군 보건소 검사역량이 강화되고, 도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확산 방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도,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협력 ‘박차’

대회 85일 앞두고, 실국 5개 분야 24개 협력과제 추진상황 점검

전북도는 대회 85일 앞둔 8일 임상규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실국별 협력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기반시설 조성 △사전·사후 관광프로그램 △도 홍보관 운영 △대테러·안전관리 △시·군 영외과정활동 지원 등 5개분야 24개과

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추진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먼저, 기반시설 분야는 상·하수도, 주차장 대집회장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직소천 과정활동장 등 잼버리 기반시설이 대회 전 완공되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무더운 여름 휴식공간을 위해

조성 중인 덩굴터널의 덩굴식물 활착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잼버리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각인 시키고, 재방문을 유인하기 위해 사전·사후 관광, 운영요원(ST) 전북관광프로그램,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문화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본격적인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무엇보다도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지원을 위해 행안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

지해 안전사고가 발생을 최소화 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잼버리 델타지역(삼각주)에서 운영 예정인 도·시군 홍보관은 전라북도 주요시책 및 미래비전을 홍보할 절호의 기회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획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하고 특색있는 전시·체험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제 행사 개최가 얼마남지 않았다”며 “그 동안 준비해 온 것들을 토대로 참가자 입장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 마지막까지 고민해 빈틈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도-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 간담회

도내 건설관련단체와 안전의식 강화 협력 등 논의

전북도는 8일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제도 등을 개선하고 안전 관련 인식 확산을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회장 배치우)와 간담

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전라북도 2023년 감사방향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측의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사항이 아직까지 현장에서의 적용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건설공사에서 각종 중대

한 안전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근 강화된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에 계도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개인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